

“지역패권, 정면으로 맞서야 이겨낸다”

《지역패권의 나라》 펴낸 황태연 교수

공식적으로 '대브리튼과 북에이레 통합왕국'이라는 긴 명칭을 가진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에이레의 네 지역으로 구성된 나라다. 이들의 지역감정은 예상로운 것이 아니어서 영국을 제국주의로, 북에이레를 식민지로 규정한 IRA(에이레공화국군)의 폭탄테러가 빈번하다. 지역주의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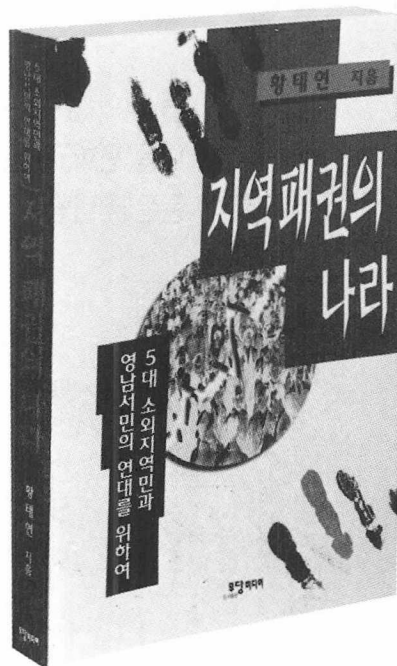
지역문제 합리적 분석으로 풀어야

“지역주의를 우리 민족만이 가진 고질적인 망국병이라 한탄하며 논의 자체를 폄하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이런 의식은 ‘영광스런 경상도사람’ 의식과 기득권에 소외되어 있으면서도 ‘비호남인’이라는 의식으로 권력에 동조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지역주의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지요.”

황태연 교수(43, 동국대 정외과)는 저서 《지역패권의 나라》를 통해 지역주의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바탕으로 현실정치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지역주의가 상부구조와 토대를 포함한 전체 사회에서 어떻게 구조화되고 재생산되고 있는가 원인을 규명하고, 서유럽의 실상과 극복 노력을 살펴 우리가 어떻게 지역감정을 타파할 것인지 대안을 밝혔다. 지역해방과 지역분권화는 21세기를 맞는 세계의 쟁점이다. 서유럽에서 ‘세계화’와 맞싸우며 내건 ‘지방화’의 새로운 국가이념은 서유럽 소외지역들의 치열한 지역주의 운동으로 탄생했다는 것이 황교수의 설명이다

“우리는 외국의 지방화 슬로건만을 받아들이고 그 의미와 과정은 간과하고 있는 셈입니다. 21세기를 앞둔 한국정치가 풀어야 할 최대 과제는 단연 지역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주의의 해결 없이는 경제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회 전체적인 근대화 기획이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이지요.”

황교수는 우선 ‘로컬리즘’(localism)과 ‘리저널리즘’(regionalism)을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의 지역문제는 작은 단위로 분할된 소지역 주민들의 자연스런 애향심의 수평적 경쟁관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지방의 특권과 차별, 출신지 연고를 매



“지역주의를 우리 민족만이 지닌 고질적인 망국병이라 한탄하며 논의 자체를 폄하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지역주의의 본질을 충분히 연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현실정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황태연 교수.

개로 중앙의 국가권력과 경제를 관통하는 거대지방적 갈등이라는 것. 공식적 행정구역인 도와 직할시의 경계를 뛰어넘는 특정지역과 차별지역의 수직적 이해갈등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미국의 정치학자 헤치터가 주창한 '내부식민주의' 이론을 들어 우리 지역주의의 실상을 설명한다. 패권지역과 주변지역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지속되거나 심화되어 주변지역의 집단이 패권지역의 내부식민지로 전락한다는 이론이 그것이다.

그가 되짚어본 패권적 지역주의의 시발은 박정희 정권의 3선 개헌부터였다. 3선개헌을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더욱 손상하고 전남 출신 김대중 후보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 박정희 정부는 정권안보를 위해 지역패권을 추구했다. 경상도 지역에 집중투자하고 영남출신 경제인에 특혜를 주는가 하면 정치인 등용과 특혜도 강화했다. '김대중 빨갱이론'과 호남고립 전략으로 유신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경상도 재벌자본주의'가 굳어졌다.

현재 경상도 대기업은 전체 대기업 매출액의 62.3%를 차지하고, 경상도 재벌은 재벌 전체가 쓰는 은행돈의 57.8%를 독식하는 반면, 이북 출신을 제외한 서울·제주·전라·충청·경기·강원 출신들은 나머지 약 20~25%의 몫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 황교수의 조사 결과다. 37년간 대권이 경북

출신과 경남 출신 사이에서만 왔다갔다하는 동안 국가조직·금융계·언론계의 고위직은 영남 인맥에 의해서 거의 독점되었고 학계도 예외는 아니다.

내부식민주의·수직적 분업주의 타파

황교수가 지역주의와 지역문제의 여러 국제적 사례들을 추적하면서 내린 결론은 한국의 5대 소외지역(제주·호남·충청·경기·강원)이란 본질적으로 한국의 '내부식민지'이고, 이를 타파하는 근원적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소외지역들의 연합' 및 '소외지역민과 영남서민의 연대'가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다.

“토니 블레어가 이끄는 영국 노동당이 압승을 거둔 것은 블루칼라들과 스코틀랜드, 웨일즈 등 영국 내의 지역정부와 지역의회가 연합한 결과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서유럽에서의 정권교체는 소외지역과 연대한 진보세력의 연합전략을 통해 달성되었습니다. 지역해방과 지역분권화는 지역패권에 대한 소외지역의 저항투쟁과 권력형성에 의해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외지역들간의 저항적 '지역연합'과 지역패권에 똑같이 억압당하는 소외지역과 노동자간의 '지역-계층연합'이 필수적이지요.”

황교수는 지역주의 문제해결과 대선의 승리전략으로서 반지역패권 정치연합을 주장한다. 그 대안의 원형은 그림시의 '계층-지

역 연합론'. 이탈리아의 남북간 지역적 불평등을 '계급문제로 환원되지 않는' 이탈리아 최대의 모순으로 규정하고, 낙후한 남부 주민과 북부 노동자의 연대를 통해 진보적 변혁을 이룰 수 있다는 이론이다. 우리 상황으로 환치하면 경상도 노동자들이 지역편견과 영남패권의식을 버리고 제주·전라·충청인들과 연합하고 동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의 정당정치 표현은 국회의원·자민련·정계진출 의사가 있는 노동계 및 재야인사의 연합이다.

황태연 교수는 정치학계에서 진보적인 학자로 꼽힌다. 서울대 외고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해외경제연구소 연구원과 한겨레신문사 프랑크푸르트 통신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황교수는 저서 《헤겔 정신현상학 해설》 《포스트사회론과 비판이론》 《환경정치학과 현대정치사상》 《지배와 이성》 외에도 부지런히 원서를 번역해내는 학자다. 국제정치사상이 전공인 그는 '세계화와 지방화'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국제정치의 근대이념'과 관련된 연구를 계속할 계획이다.

— 마정미 기자

무당미디어/A5신/410면/15,000원